

##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도구 개발\*

김 용 주† 신 응 섭 고 재 원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구체적 행동의 가능성이 적은 병영생활을 고려하여 병사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고, 분류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후방 근무 병사 454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는 9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본 조사는 1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병사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도구'는 총 6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입대 전 경험에 기초한 중독경험의 과거력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이순목 등(2005)이 개발한 성인용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A척도)를 활용하되 시제를 과거형으로 전환한 20문항이 선정되었다. 둘째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취약 특성으로 외로움, 자기효능감, 통제력을 측정하는 33문항이 선정되었다. 셋째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대체 행동 및 욕구를 진단하는 8문항이 선정되었다. 진단 결과는 중독 경향성 수준에 따라 위험군, 잠재군, 일반군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단도구는 과거 인터넷 중독에 빠진 경험이 있었던 병사가 현재 병영생활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해주며, 이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각종 악성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인터넷 중독, 심리적 취약성, 중독관련 대체행태, 외로움, 자기효능감, 통제력

\* 이 논문은 2006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김용주, (139-799)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E-mail: kingiessen@hanmail.net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특징 지워지는 시대이다. 세계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컴퓨터이며, 이를 활용한 인터넷이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활용은 정보화 시대에서 필수불가결하며, 갈수록 그 이용자의 수요와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5.5%이며, 이용자수는 3,443만 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젊은층의 94%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이며, 4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77.8%, 50대는 45.6%, 60세 이상은 17.4%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인터넷 환경이 계층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보홍수, 정보오해, 과도한 사용에 따른 신체·심리·사회적 문제 등 부정적인 효과도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역기능 양상과 피해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설치된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06년 8월말 기준으로 23,484건이었다. 이는 2002년 2,599건 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5년 8월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값이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가 2007년 신규 임용예정인 초등학교 교사 8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30.4%가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중독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6).

정신 병리에서 ‘중독’의 개념은 대체로 물질 사용에 따른 중독으로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와 같은 물질 사용으로 인하여 생리적인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을 동반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이 뒤따를 때 내려지게 되는 진

단이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정신과 의사인 Goldberg(1995)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 ‘인터넷 중독증(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이라 일컫고, Young(1996)이 DSM-IV의 약물남용 장애 진단준거를 수정하여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에 걸쳐 중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시작된 인터넷 사용 행동이 점차 사용시간이 증가되어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지속하게 되고, 중단했을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쾌감과 불만족감을 초래하여 분명하게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부적응적인 인터넷 사용 행동이 지속되고 있을 때”라고 정의한다(이순목 외, 2005).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김청택 등, 2002; 이순목 등, 2005),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중독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하여 유발될 수도 있다. 인터넷에 몰입하거나 중독된 사람들은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고 충동적이었다(윤재희, 1998). 송원영(1999)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기 통제력과 가상공간 및 현실생활에서의 개인적 효능감과 대인관계 효능감을 제시하였다. 김선우(2002)

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는 무력감이며 다음으로 고립감, 교육수준 그리고 규범상실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형초와 안창일(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고, 게임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지각하고, 충동적이며,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터넷게임 중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들에서 언급되는 개인 심리적 특성 요인들을 종합한 결과, 중복되어 언급되는 요인은 우울증, 자기통제력, 충동성, 외로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관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독자를 선별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진단도구의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는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이다. 이 진단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 내성, 금단, 신체적 문제, 학업 및 직업적 문제, 가족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7가지의 중독 증세를 진단한다. 강만철과 오익수(2001)는 국내 인터넷 사용 현실에 맞고 전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었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착, 강박적 사용, 내성 및 의존성, 재발, 생활 장애 등 5개 요인을 진단한다. 그 밖에도 이형초(2001)의 중학생용 ‘인터넷 게임중독 진단척도’,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의 청소년용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 김유정(2002)의 중고등학생용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문성원과 김성식(2004)의 초등학생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척도’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개발된 이순목 등(2005)의 성인용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자기 보고형 척도

(A척도)와 인터넷의 병리적인 사용과 관련된 행동적 증상을 가까운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관찰자용 행동평가 척도(B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A척도는 가상세계 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 인식 등 4개 요인을 진단하는 것으로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오고 있는 반면에 군에서는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군은 군사보안 특성상 부대 내에서 병사들에 의한 인터넷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부대 내에서도 인터넷 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군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에 의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적은 수이지만 이미 군 내부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피해사례들이 일부 관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 중독에 따른 피해사례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군에서도 인터넷 사용 위험군의 변별과 치료적 개입을 위해 적절한 평가와 전문적 개입 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인척도를 군 장병에게 적용하기에는 군대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먼저 군대 내에서 병사들의 인터넷 사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구체적인 행동경험을 기초로 하는 평가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부대 내·외에서의 인터넷 중독 관련 형태들은 일반사회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군내의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

는 도구의 개발이 일반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안들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즉, 한 병사가 현재 인터넷 중독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 중독 경험여부와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진단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군대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진단도구는 그 적용대상을 병사로 한정하였다. 간부들의 중독 문제는 사용여건과 경험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별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도구 개발에 앞서 인터넷 중독 실태와 관련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구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하고 예비조사에 사용할 문항들을 선정하는 데에 참고할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 가지 문제는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인터넷 중독 진단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의 인터넷 중독 여부를 조사하기 보다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회상형 진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는 이순목 등(2005)의 A척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되 단지 원래 사용된 문항들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전환하였다.

조사는 논산훈련소와 2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인 병사 4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상한 중독 수준별 비율과 거의 유사한 비율 분포를 나타냈다.

표 1. 중독정도에 따른 집단별 비율(단위: %)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 I군	잠재적위험 사용자 II군	고위험 사용자군
일반인	6.2	82.6	11.2	0.0
훈련병	8.5	76.7	13.9	0.9

인터넷 중독 진단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병사 8명을 직접 인터뷰하였으며, 그 결과 진단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군 입대 전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중독수준에 빠졌던 병사들은 입대 후 그 욕구가 상당부분 바쁜 일상 업무에 대한 압박감으로 대체되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면담과정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병사의 경우 심리적인 취약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터넷에 빠질 가능성이 몇 배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는 현재 군에서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체행동(부대 내 게임 잡지 구독, 외출/외박시 PC방 과다사용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부대생활 중에도 인터넷 중독 상태를 유지시켜 주거나 강화시켜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초조사 연구 결과 연구진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성인용 진단척도인 A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척도는 기초조사에서 요인의 안정성, 예상된 분포의 유지, 검사문항의 수와 신뢰도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독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취약성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으로 우울증, 외로움, 자기통제력, 충동성, 자기효능감 등이 선정되었다. 심리적 취약 요인들은 입대 전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대 후 새롭게 인터넷에 접하게 될 경우 상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에서 취약한 병사들은 병영 생활 과정에서 중독과 연관된 다양한 대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중독과 연관된 대체육구 및 행동들의 평가이다. 비록 부대 내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병사들은 나름대로 인터넷에 대한 욕구충족 방식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대체행태에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욕구와 욕구충족을 위한 대체행동들이 포함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대체행동은 부대 내에서 음성적으로 게임 잡지를 본다거나, 외출 혹은 외박시에 과다하게 PC방을 이용하는 것이다. 병영생활 중에 이러한 대체행태를 많이 보일수록 중독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인

터넷 중독 경험이 있고 현재도 대체행태를 빈번하게 행하는 병사가 있다면 세심한 지휘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그림 1은 군대 환경에서 인터넷 중독과 중독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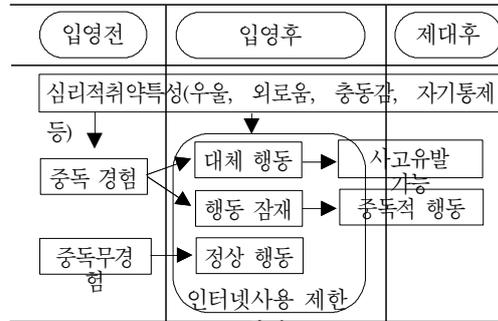


그림 1. 군대환경에서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들의 관계

군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병사는 입대 전 중독자 수준까지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심리적으로 취약하면서 다양한 대체행태를 보이는 병사들이다. 이들은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상의 부적응과도 연계하여 반드시 상담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은 입대 전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며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대체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입대 전에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고, 심리적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병영생활 중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대체행태를 보이는 병사들은 제대 후에도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예비조사는 그림 1에서 제시된 개념 구도에 따라 입대 전의 행동, 입대 후의 행동, 그리고 심리적 취약성의 진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 예비조사

예비조사에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 범주의 예비문항들을 만들고, 전·후방 사단 근무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주별로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의 첫 번째 범주는 군에 입대하기 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들이다. 기초조사에서와 동일하게 이순목 등(2005)의 A척도를 활용하되 문항들의 시제를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전환하였다. A척도는 4개 하위요인을 진단하며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범주는 심리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문항들이다. 연구자들은 일차적으로 우울, 외로움, 통제력, 적대감, 충동성, 효능감,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문항 249개를 선정한 다음,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하여 예비조사에 사용될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91개의 문항들이 선정되었다(우울 21문항, 외로움 11문항, 충동성 14문항, 자기통제력 27문항, 자기효능감 18문항).

세 번째 범주는 병영생활 중 인터넷 중독 상태를 유지 및 강화시키는 욕구 및 행동을 판단하는 중독관련 대체행동 진단 문항들이다. 기초조사에서 병사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게임 잡지 구독, 외출·외박시 PC방 과다사용, 강한 인터넷 채팅욕구 등 인터넷 중독관련 행동이나 욕구 등이 관찰되었다. 여기에서는 모두 11개 문항이 작성되었다.

#### 조사대상

예비조사 대상은 가급적 지역분포를 고려하

여 전·후방 사단들 중에서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4개 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조사인원은 900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872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보면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21~22세가 전체 53%를 차지하였으며, 계급별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일일 사용시간을 보면 3~4시간이 36.3%이고 5~6시간이 21.4%를 차지하였다. 사용 장소는 대부분 집과 PC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의 연령, 계급, 사용빈도/장소별 분포

구 분	세부항목	빈 도	비 율(%)
연령	18~20세	333	37.9
	21~22세	464	53.0
	23~26세	75	8.8
계급	이병	268	30.6
	일병	245	28.0
	상병	181	20.7
	병장	178	20.2
일일 사용시간	1시간미만	15	1.7
	1~2시간	96	11.0
	3~4시간	318	36.3
	5~6시간	187	21.4
	7~8시간	70	8.0
	8시간 이상	186	21.3
주 사용장소	집	588	67.2
	학교	11	1.3
	PC방	266	30.4
	회사	4	0.5
	기타	3	0.3

#### 조사도구

예비검사는 총 1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지에 사용된 문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영전 인터넷 중독진단 문항 21개(A척도 20개, 기준시기 1개), 심리적 취약성 진단 문항 91개, 중독관련 대체요인 진단 문항 11개, 인구통계학적 자료 6개, 인터넷 사용관련 부가적인 정보 5개 이었다. 검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그렇다-매우 그렇다)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독여부를 판단하는 민감한 문항들은 가급적 ‘보통이다’와 같은 중립형 문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조사대상 사단을 선정하고 사단에서 조사가 가능한 부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알려주면 연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결 과**

**입대전 중독경험 진단척도**

A척도를 과거시점으로 전환하여 입대 전의 인터넷 중독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조사 결과를 통하여 예측되었던 것과 유사한 중독수준별 분포를 나타냈다.

표 3. 입대전 인터넷 중독 수준(괄호안은 비율)

계급	고위험군	잠재 위험군Ⅱ	잠재 위험군Ⅰ	일반 사용자군	계
이병	0 (0.0%)	28 (10.4%)	229 (85.4%)	11 (4.1%)	268 (100%)
일병	2 (0.8%)	27 (11.0%)	199 (81.2%)	17 (6.9%)	245 (28.1%)
상병	0 (0.0%)	12 (6.6%)	154 (85.1%)	15 (8.3%)	181 (20.8%)
병장	3 (1.7%)	12 (6.8%)	139 (78.5%)	23 (13.0%)	177 (20.3%)
계	5 (0.6%)	79 (9.1%)	722 (82.8%)	66 (7.6%)	872 (100%)

중독수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위험자군에 속하는 인원이 5명(0.6%), 잠재적 위험자 II군이 79명(9.1%), 잠재적 위험자 I군이 722명(82.8%), 일반사용자군이 66명(7.6%)으로 나타났으며,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길수록(계급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대 전 인터넷에 중독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연 치유되어 그 비율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순목 등의 A척도는 가상세계 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 및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요인구조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취약성 진단척도**

탐색적 분석과정에서 원 자료를 이분하여 절반은 모형개발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모형의 교차타당화용으로 사용하였다. 872명의 자료를 균형 있게 나누어 자료 1과 자료 2에 각각 436명씩 할당하였다.

표 4. A척도 문항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중독10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았다.	.737	.261	.067	-.082
중독8	일상에서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인터넷을 하게 되었다.	.699	.108	.182	.005
중독7	인터넷을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겼었다.	.684	.108	.012	.179
중독9	인터넷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쉽게 흥분하였다.	.639	.258	.218	.171
중독2	실제 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었다.	.532	.131	.007	.302
중독1	인터넷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478	.083	.019	.443
중독14	일단 인터넷을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을 하게 된다.	.178	.686	.232	-.143
중독11	“그만 해야지”하면서도 번번이 인터넷을 계속하게 되었다.	.152	.661	.309	.077
중독15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금방 답답하고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087	.618	-.069	.132
중독5	인터넷을 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났었다.	.191	.634	-.008	.174
중독13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부터 하게 된다.	.160	.538	.231	.254
중독16	인터넷을 하느라 다른 활동이나 TV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었다.	.177	.487	.322	.072
중독12	일상 대화도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었다.	.333	.360	.098	.247
중독1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였다.	.054	.198	.773	-.021
중독18	지나치게 인터넷에 몰두해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076	.208	.763	-.007
중독17	인터넷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었다.	.044	-.127	.632	.340
중독20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인터넷에 중독된 것 같았다.	.181	.255	.612	.215
중독4	사이버 세상과 현실이 혼동될 때가 있었다.	.012	.049	.191	.727
중독6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졌었다.	.246	.331	.161	.641
중독3	인터넷을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452	.191	-.024	.567

자료 1을 대상으로 탐색적요인분석을 한 결과 도출되는 요인의 수가 너무 많아 일정한 수의 문항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을 적용하였다. 일차적으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반응의 편중이 심한 문항들을 제외시켰다. 예비조사에 사용된 91개 문항은 기존의 7개 척도에서 추출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요인의 수를 7개로 고정하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인들은 문항의 수가 적거나, 문항들 간의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4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만을 대상으로 재차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3개의 요인은 문항수와 내적일관성 등에서 매우 양호 하였으나 나머지 한 요인은 문항의 수가 상대

적으로 적어 제외시켰다.

3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문항 제외시 척도의 신뢰도 계수 분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심리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척도는 외로움(12개 문항), 효능감(13개 문항), 통제력(9개 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선정된 요인에 대한 교차타당화 분석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 검증에서 외로움 척도는 알파 값이 .87, 효능감 척도는 .80, 통제력 척도는 .82로 나타났다.

#### 인터넷 대체행태 진단척도

인터넷 대체행태 진단척도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평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욕구, 인터넷 중

독 관련 행동 등 모두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11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3개의 요인 중에서 인터넷 대체행태를 진단하는 요인은 ‘인터넷 사용 욕구’와 ‘인터넷 중독 관련 행동’ 요인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 사용평가에 대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인터넷 사용욕구와 중독관련 행동에 대한 문항들만을 사

용하여 인터넷 대체행태를 진단하기로 하였다.

요인 간 상관관계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는 세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일종의 검사 battery 형식을 취하고 있다.

표 5. 인터넷 대체행태 진단문항 요인분석

번호	문항내용	1	2	3
10	외박시 PC 방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	.747	.193	.058
8	외출/외박시 인터넷 게임 잡지를 부대에 반입한 적이 있다.	.734	.053	-.023
9	외출시 대부분의 시간을 PC 방에서 보낸 적이 있다.	.687	.174	.162
7	인터넷 게임 잡지를 부대에서 가끔 본다.	.676	.047	.121
11	휴가시 친구를 만나 대화하는 것보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좋다.	.546	.364	.051
6	현재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다.	.002	.802	-.007
5	현재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다.	.282	.689	.224
4	가끔씩 인터넷 하는 꿈을 꾸다.	.261	.560	-.056
1	컴퓨터로 게임을 한 시간 하는 대신 하기 싫은 작업을 6시간 하겠다.	.036	-.202	.725
2	일일 평균 6시간 사용하면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다	.126	.230	.707
3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 한다.	-.084	-.355	-.378

따라서 이들 요인들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중독등급에 따라 심리적 취약 특성과 입대 후 대체행태가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표 6은 A척도의 총점과 심리적 취약 특성(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그리고 인터넷 중독 대체행태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심리적 취약 특성(외로움, 통제력, 효능감)과 대체행태는 A척도의 문항 총점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심리적 취약 특성 중에서 외로움과 효능감은 타 요인과의 상관관계 면에서 양호한 수준이나 통제력은 다소 상관관계 값이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취약 특성 간의 상관관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차타당화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A척도에 의하여 인터넷 중독정도를 4개의 수준(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I, -II,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한 다음, 각 수준별로 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대체행태 차원에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로움( $F(3, 869)=7.79, p < .001$ ), 통제력( $F(3, 869)=14.16, p < .001$ ), 효능감( $F(3, 869)=31.78, p < .001$ ), 대체행태( $F(3, 869)=30.95, p < .001$ ) 모두에서 중독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표 6. 진단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A척도	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대체행태
A척도		.275**	-.300**	-.430**	.410**
외로움	.213**		-.387**	-.520**	.266**
통제력	-.312**	-.397**		.504**	-.180**
효능감	-.400**	-.547**	.550**		-.254**
대체행태	.463**	.292**	-.251**	-.189**	

\*\* p < .01

※ 표 상단의 수치는 원자료의 절반인 자료1의 값이며, 표 하단의 수치는 자료2의 값이다

### 본 조사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요인들에 대해 확인하고, 예비조사보다 더 많은 인원을 표집하여 보다 더 신뢰롭고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을 작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조사 대상

조사 대상 부대는 각 군별, 지역별, 임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을 포함시켜 차후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각 군별 조사 인원은 각 군의 규모를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또한 계급별(이병~병장)로 가급적 균등한 분포를 이루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육군 1,375명, 공군 300명, 해군 220명 등 총 1905명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실제 분석된 인원은 1834명이었다.

### 조사 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모두 7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입대전 중독여부를 진

단하기 위하여 A척도 20문항과 추가적인 문항(기준시기, 사용시간, 평가) 3개가 사용되었다. 심리적 취약성 진단을 위해 34문항이 사용되었다(외로움, 12문항, 자기 효능감 13문항, 통제력 9문항). 대체행태를 진단하기 위한 문항 8개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평가 문항 3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적 자료를 위해 3문항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본 조사에서는 총 71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 조사 방법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여 분이였다. 조사는 응답자들이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조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하였다.

## 결 과

### 입대 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A척도를 사용하여 입대 전 인터넷 중독 여부를 진단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고위험군은 0.7%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II군에 7.3%, 잠재적 위험 I군에 82.2%, 일반사용자군에 7.6%가 포함되었다. 고위험자군의 비율은 예비조사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며, 잠재위험 II군과 I군의 비율은 예비조사 대비 다소 줄어 들었다. 상대적으로 일반사용자군의 비율은 예비조사 대비 증가하였다. 표 7은 계급별로 중독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군별로 차이를 보면, 육군과 해군은 중독집단 별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으나 공군은 타군 대비 상대적으로 잠재위험 II군의 비율이 높았다

(육군 6.7%, 해군 6.2%, 공군 10.3%). 이러한 결과는 공군에 입대하는 자원들이 타군에 입대하는 자원보다 기술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입대 전 인터넷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일 수 있다.

표 7. 입대 전 계급별 인터넷 중독 수준(괄호안은 비율)

계급	고위험군	잠재 위험군 I	잠재 위험군 II	일반 사용자군	계
이병	5 (1.1%)	33 (7.5%)	371 (83.9%)	33 (7.5%)	442 (100%)
일병	4 (0.8%)	40 (8.2%)	384 (78.9%)	59 (12.1%)	487 (100%)
상병	0 (0%)	38 (7.5%)	398 (78.5%)	71 (14.0%)	507 (100%)
병장	4 (1.0%)	22 (5.5%)	315 (79.1%)	57 (14.3%)	398 (100%)
계	13 (0.7%)	133 (7.3%)	1468 (80.0%)	220 (12.0%)	1834 (100%)

또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은 공군은 육군이나 해군과 대비하여 병사들에게 평상시 부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일 수 있다.

A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예비검사와 유사하게 기존 척도에서 제시하는 요인의 구조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A척도를 과거시제로 전환하여 입대 전의 인터넷 중독여부를 진단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중독군에 따라서 주중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자신들의 인터넷 사용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먼저 상기 요인에 대한 일요인 변량분석 결과, 중독군에 따라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F(3, 1830)=104.4, p < .001$ , 인터

넷 사용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3,1830)=99.1, p < .001$ .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일일 평균 사용시간이 높고, 인터넷 사용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심리적 취약성 진단 척도

본 조사에서는 외로움과 효능감 그리고 통제력 등 심리적 취약성을 진단하기 위해 3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34개 문항에 대하여 주축성 분석을 통한 사각요인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 8과 같이 세 요인의 문항 구성은 최초의 구성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외로움, 효능감, 통제력의 세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외로움 척도는 알파계수가 .87로 나타났으며, 13개 문항들에 대한 검증결과 모든 문항의 알파계수가 .87보다 낮았다. 효능감 척도의 알파계수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개별 문항분석에서 문제가 관찰되지 않았다. 통제력 척도의 알파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문항 분석에서 ‘15번 문항’의 경우 해당 문항을 제거시 알파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 심리적 취약성 진단문항 요인분석 결과

문항	문항내용	요인		
		1(외로움)	2(통제력)	3(효능감)
23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	.668	-.214	.229
17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665	-.235	.310
14	해야 할 일을 곧 잘 잊어버린다.	.629	-.245	.304
34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빼먹을 때가 있다.	.616	-.341	.206
15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에 착수한다.	.609	-.195	.266
18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행동한다.	.600	-.273	.583
33	경쟁 상황에서는 남보다 앞서기가 어렵다.	.598	-.501	.196
20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587	-.114	.046
11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583	-.318	.263
29	나는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581	-.390	.107
12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562	-.255	.513
8	고민을 털어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집착한다.	.542	-.505	.101
31	나는 의견의 불일치를 조절하려고 할 때 종종 이를 더 악화시키곤 한다.	.503	-.481	.166
5	당황하면 땀이 나서 몹시 불쾌할 때가 가끔 있다.	.445	-.377	.050
19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09	-.719	.269
16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161	-.701	.280
13	나는 내가 원할 때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다.	.169	-.700	.248
10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298	-.700	.108
4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일이 별로 없다.	.348	-.688	.043
1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305	-.662	.110
22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410	-.648	.106
7	친구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어울려 주지 않는다.	.422	-.639	.125
25	나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다.	.271	-.596	.182
26	내가 세운 계획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렵다.	.481	-.534	.082
28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03	-.531	.236
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517	-.528	.189
32	거의 언제나 온몸에 기운이 없다.	.473	-.524	.122
30	정신이 나가거나 자제력을 잃을까봐 두렵다.	.388	-.476	.120
27	행동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다.	.238	-.243	.747
9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152	-.215	.693
3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258	-.183	.667
24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의 깊은 편이라고들 한다.	.245	-.223	.659
21	이것저것 생각나는 말을 늘어놓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한 번에 말하는 편이다.	.155	-.131	.623
6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553	-.254	.593

따라서 통제력 척도에서는 ‘15번 문항’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터넷 관련 대체행태 진단 척도

병영내 인터넷 관련 대체행태를 진단하는 문

항은 모두 11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인터넷 욕구 문항 3개와 부대 생활간 대체 행동에 대한 문항 5개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평가 문항 3개가 포함되었다.

이들 11개 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과 사각요인회전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욕구 진단 문항 3개와 부대 생활 간 인터넷 중독 대체행동 문항 5개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었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평가 문항 3개는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행태 진단척도가 단일요인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이로서 인터넷 관련 대체행태를 진단하는 문항은 8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 종합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진단하는 척도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척도는 모두 6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입대 전 인터넷 중독정도를 진단하는 변형된 척도 20문항(A척도라 명함), 인터넷 중독과 연관성이 높은 심리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척도 33문항(P척도라 명함), 그리고 병영생활 중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대체행태를 진단하는 척도 8문항(B척도라 명함)이 포함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P척도는 다시 외로움을 진단하는 12개 문항(L척도라 명함)과 효능감을 진단하는 13개 문항(E척도라 명함), 그리고 통제력을 진단하는 8개 문항(C척도라 명함)으로 구분되었다.

## 진단기준 설정

### 진단기준 설정 방식

‘진단’은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범주에 분류하는 일종의 절대평가로서 그 기준점수의 설정은 필수적 사항이다(이순목 등, 2005). 기준점수의 설정 방법에는 규준적 방안,

응답자 중심 방안, 검사내용 중심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김청택 등(2002)의 K척도는 규준참조검사로서 응답자간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준다. K척도에서는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표준점수 70점 이상이거나 총점의 표준점수 70점 이상인 집단(상위 2~3%에 해당)을 “중독 고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세요인들 중에서 한 요인이라도 70점 이상이거나 총점이 표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 다른 “중독 위험집단”은 표준점수 63점(상위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이순목 등(2005)이 개발한 A척도는 인터넷 중독 전문가들이 설정한 중독수준의 기준점수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의 사용 또는 어느 수준의 중독인지를 가려내는 영역참조검사이다. 이것은 조직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절대평가이다. 이순목 등의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하여 A척도에서 67점 이상이고 B척도에서 16점 이상이면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하고, A척도에서 54점 이상이고 B척도에서 6점 이상이면 “잠재적 위험사용자 II군”으로 분류하였다. “잠재적 위험사용자 I군”은 A척도가 31점 이상이고 B척도가 1점 이상인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A척도를 사용하여 입대 전 인터넷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A척도 사용기준에 따라 영역을 참조하여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병사의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기 위해 성인용 A척도와 더불어 심리적 취약성 척도 및 대체행태 척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척도의 기준 설정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심리적 취약성과 대체행태 척도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해야만 한다. A척도의 분류기준을 재설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인원비율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원래의 기준에 의하면 고위험사용자군은 거의 1% 미만으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고위험 사용자군의 분류 기준선을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다소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2~3%를 상위집단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 진단 기준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병사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휘관심과 더불어 상담이 요구되는 집단과 적절한 상담지도가 요망되는 집단,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일반집단 등 세 부류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중독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상대평가방식을 택하였으며,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T점수 분포를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의 2.5%선인 표준점수 70점대를 고위험집단과 잠재적 위험사용자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사용자 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표준점수 63점대(상위 10%선)를 택하였다. 각 척도별로 표집의 분포에 따라 표준점수 70점과 63점에 상응하는 원점수는 각기 다르다. 각 척도 점수는 위에 제시한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거하여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 1이 10점에 해당하는 표준점수로 전환되었다. 표 9는 각 척도들의 원점수를 T점수표에 대응시켜 놓은 것이다.

표 9. 표준점수표를 기초로 각 척도들의 원점수들을 대응시킨 표

T값	A척도	B척도	P척도	L척도	E척도	C척도
105				47		
100				45		
95			119	42		
90	79	31	114	40	50	
85	74	29	108	37	47	30
80	70	27	102	35	45	28
75	65	25	96	32	42	27
70	60	23	90	30	39	25
65	55	20	84	27	36	22
63	54	19	82	26	35	23
60	51	18	78	25	33	21
55	46	16	72	22	31	19
50	42	14	66	20	28	18
45	37	12	60	17	25	16
40	32	9	54	15	22	14
35	28		48	12	19	12
30	23		42		17	10
25			36		14	9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독경험을 말하는 A척도의 경우 위험군은 60점 이상이며, 관심요망군은 54~59점이며, 일반군은 53점 이하이다. 부대생활 중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대체행태를 말하는 B척도는 위험군이 23점 이상, 관심요망군은 19~22점, 일반군은 18점 이하이다. 심리적 취약성의 세 요인을 합한 값인 P척도는 위험군이 90점 이상이며, 관심요망군은 82~89점, 일반군은 81점 이하이다.

### 인터넷 중독 상담 집단 분류

병사용 인터넷 중독 상담 집단은 5개 척도들(A, B, L, E, P척도)의 조합에 의하여 표 10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0.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 집단 분류기준

집단	분류기준	비고
I군 (위험군)	• A척도의 표준점수가 70점 이상이고, B, L, E, P 척도들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척도에서 표준점수 70이상	필수 상담 대상
II군 (잠재군)	• A척도의 표준점수가 63점 이상이고, B, L, E, P 척도들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척도에서 표준점수 63이상 • A척도의 표준점수가 63점 미만이고, B, L, E, P 척도들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척도에서 표준점수 70이상	상담 권장 대상
III군 (일반군)	• I, II군에 속하지 않는 집단	정상

I군에 해당하는 위험군은 입대전에 인터넷 사용정도가 중독수준이었으며 심리적 취약성을 갖고 있고 부대 생활 간에도 인터넷 중독과 대체되는 행태를 보이는 병사들이다. 이들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II군은 잠재군으로서 입대전 인터넷 중독 수준이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면서 심리적 취약성이나 대체행태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병사들이다. 이들에게는 상담활동이 권장되었다. 마지막으로 III군은 일반군으로서 I군 과 II군에 속하지 않는 병사들이다. 통제력 척도는 심리적 취약성에 포함되었지만 통제력 척도 자체에 의하여 집단을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통제력 척도 자체가 중독점수와 다른 대체행태와의 상관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군별 분석(육군, 해군, 공군)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는 차후에 육군뿐만 아니라 해

군과 공군에도 적용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표집과정에서 3개 군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본 조사에서는 육군 1335명, 공군 290명, 해군 209명이 조사되었다. 이들은 각각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군과 잠재군 그리고 일반군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별로 중독군이 분류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각 군별로 인터넷 중독집단의 분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chi^2$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chi^2=7.48, p=.113$ . 그러나 각 군별로 분포된 내용을 보면 육군과 공군은 다소 유사하나, 해군의 경우 위험군과 잠재군은 합하여 5.2%로 타군의 10.9%와 12.1% 대비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도구는 입대 전 인터넷 중독 여부를 진단하는 A척도와 부대 내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대체행태를 진단하는 척도 그리고 심리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세 가지 척도(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등 모두 5가지 척도를 사용한다.

A척도는 가상세계지향, 긍정기대, 내성 및 몰입, 자기인식 등 4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시제를 과거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1. 각 군의 인터넷 중독 수준별 인원 분포

군	인터넷 중독집단 구분			합계
	위험군	잠재군	일반군	
육군	40 (3.0%)	105 (7.9%)	1190 (89.1%)	1335 (100.0%)
공군	11 (3.8%)	24 (8.3%)	255 (87.9%)	290 (100.0%)
해군	4 (1.9%)	7 (3.3%)	198 (94.7%)	209 (100.0%)

심리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척도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에서 효능감 척도의 알파계수가 .86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 척도는 .87 그리고 통제력 척도는 .82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행태를 진단하는 척도의 알파계수는 .83으로 역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척도와 대체행태 간에는 .515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외로움, 통제력, 효능감 점수를 합한 심리적 취약성(P척도)도 A척도와 .481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세 가지 심리적 취약성 척도들 중에서 효능감 척도가 타 척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심리적 취약성, 대체행태의 진단영역을 조합하여 위험군, 잠재군, 일반군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결과와 원래 A척도에 의한 분류간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표 14 참조). 그 결과 기존의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A척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변화를 찾아낼 수 있었다. 기존의 A척도에서는 잠재적 위험사용자 I군과 일반사용자군을 구분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본 연구의 3등급 분류에 맞추어 동일한 집단으로 통합하였

다. 따라서 비교되는 두 유형의 분류방식은 모두 3등급의 분류체계를 갖게 되었다.

표 12. 각 척도간 상관관계

구분	A	E	C	L	B	P
A척도	1					
E(효능감)	.525	1				
C(통제력)	.260	.536	1			
E(외로움)	.366	.636	.385	1		
B(대체행태)	.515	.330	.221	.354	1	
P(심리취약)	.481	.904	.719	.840	.372	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A척도만으로 병사의 인터넷 중독여부를 진단할 경우와 본 연구의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간 일치도는 0.9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A척도에 의하면 위험군은 0.75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의 진단척도에 의하면 3%로 적정한 수준의 위험군이 선정되고, 잠재군과 통합하면 약 10%정도의 상담대상 병사들이 선정된다. 이러한 비율은 향후 인터넷 중독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비율이다. 특히 김청택 등(2002)의 연구에서 상담이 요구되는 대상을 약 10%로 보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의 부가적인 이점은 입대 전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입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접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A척도는 항상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하는 도구이나,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표 13에서 보듯이 입대 전 위험군으로 분류된 13명 중에서 11명은 입대 이후에도 그 경향성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문제유발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3. 기존 A척도의 분류방식과 본 연구의 새로운 분류방식 간의 일치도2

	본 연구의 척도			합계	
	위험군	잠재군	일반군		
	고위험	11	0	2	13 (0.7%)
기존 A척도	잠재적 위험	44	40	49	133 (7.3%)
	일반 사용자	0	96	1592	1688 (92.0%)
분류 방식	계	55 (3.0%)	136 (7.4%)	1643 (89.6%)	1834 (100%)

입대 전 잠재적 위험사용자는 모두 133명이 다. 이들은 입대 후 위험군에 44명, 잠재군에 40명, 일반군에 49명으로 위치가 이동되었다. 즉 군에 들어와서 여전히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 경향성을 소유하고 있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병사도 있다. 이처럼 새로 개발되는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는 인터넷 중독 경향의 변동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사고와 악성사고 예방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일선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매우 유용한 병력관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에 의하여 분류된 세 집단(위험군, 잠재군, 일반군)은 여러 가지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에는 1) 자신의 인터넷 사용수준에 대한 평가, 2) 인터넷 일일 평균 사용시간, 3)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사용시간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반응결과가 나타나있다.

표 14에서 보는데와 같이 위험군은 자신의 인터넷 사용수준이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잠재군보다 더 강하다,  $F(2, 1831)=66.3, p < .001$ . 주중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서도 평균 5시간으로 잠재군이나 일반군 대비 더 많은 시간을 나타내었다. 평균 몇 시간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게 사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험군과 잠재군은 다소 유사하게 응답하였으나 두 집단은 일반군과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을 제시하였다.

##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군대내 병사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고, 분류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병의 인터넷 중독 현상을 이해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개인별 중독정도를 측정하여 상담 및 예방 활동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획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표 14. 중독 경향성 수준별 평균비교 (괄호안은 표준편차)

집단구분	문제평가	일일시간	과다기준
위험군	2.80 (1.08)	5.04 (1.22)	3.24 (0.96)
잠재군	2.44 (0.87)	4.32 (1.30)	3.21 (0.86)
일반군	1.93 (0.70)	3.26 (1.26)	2.77 (0.91)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인척도는 군대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선 군대 내 병사의 인터넷 사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구체적 행동경험을 기초로 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내, 외에

서의 인터넷 중독 관련 행태들은 일반사회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심리검사 개발과정을 적용하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적은 병사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입대 전 경험에 기초한 중독경험의 과거력 판단과 중독에 관련된 심리적 취약성과 군내에서 있을 수 있는 특수한 행동 및 욕구를 고려하는 이중 기준의 판단과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들을 개관하고 군내 내 병사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과거력을 판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진단척도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이순목 등(2005)이 개발한 성인용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인 A척도가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 가지 문제는 기존의 A척도가 현재형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문항의 시제를 과거로 변경하고, 변경된 진단척도에 대한 사용안정성 여부를 일반적인 검사제작과정에 따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른 두 번째 관심영역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검토이었다.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조직 및 사회 그리고 생활상의 환경적 요인,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요인,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있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요인 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병사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영향요인이었으면서 동시에 군내에서 인터넷 중독성향을 그대로 유지시켜가는 대체 행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인터넷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취약특성들을 다른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외로움과 통제력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가장 유효한 영향요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들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 연구 결과 외로움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효능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 그리고 통제력을 측정하는 8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관심 영역은 병사들이 병영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인터넷 중독 경험을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다양한 대체 행태들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병사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야전 부대 지휘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행태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예비문항들을 작성하였다. 대체행태는 인터넷에 대한 욕구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행위들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8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는 총 6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① 입대 전 인터넷 중독 정도를 진단하는 변형된 척도(A척도) 20문항, ② 인터넷 중독과 연관성이 높은 심리적 취약 특성을 진단하는 척도(P척도) 33문항, 그리고 ③ 병영생활 중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대체행태를 진단하는 척도(B척도)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추가적으로 외로움을 진단하는 12개 문항을 I척도라 명명하고, 효능감을 진단하는 13개 문항을 E척도라 명명한다. 그리고 통제력을 진단하는 척도는 C척도로 정하였다.

각 척도는 진단 결과를 3 수준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각 수준의 분류기준은 표집집단의 응답분포와 관계적인 통계적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즉 상위집단은 평균이 50이

고 표준편차가 10인 T점수로 변환시 표준점수 70점 이상인 집단이며, 중간 집단은 표준점수 70점 미만 63점 이상인 집단이다. 하위 집단은 표준점수 63점 미만인 집단이다. 각 척도의 분류기준은 표 14와 같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는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된 A척도가 .90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P척도가 요인에 따라 .82~.87의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고, B척도 또한 .83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의 A척도 분류방식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간의 집단분류 일치성은 .9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경향의 변동성을 진단할 수 있다. 즉 과거에 인터넷 중독에 빠진 경험이 있었던 병사가 현재 병영생활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해 주며,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각종 악성사고 예방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일선 지휘관들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논 의

군의 특수한 여건으로 일반사회와 달리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군도 점차적으로 인터넷에 개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해결에 대한 모색을 하여야 한다. 인터넷 부작용의 해결을 위한 일차적 연구로서 군에서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측정하여, 관리

및 교육에 참고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군의 현실적 여건과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각급 부대의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단 도구(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척도)를 활용하여 현재 우리 군의 인터넷 중독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파악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군내 악성사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군의 제반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입영초기(훈련소, 신병교육대 교육과정)에 병사용 인터넷 중독 경향성 진단 척도를 적용하여 입대전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심리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사용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차후 배치부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검사지의 내용 중에서 부대 내에서의 대체행동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입영 후 일정한 시점(입영 후 약 6개월이 되는 시기)에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대체행태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진단문항에 기초하여 면담이나 설문 형식으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입영 초기에 획득된 “입영전 중독 경험”과 “심리적 취약성” 그리고 “입영 후 대체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개개 병사들의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행태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중독 진단 결과, 위험군과 잠재군에 분류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관리대책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병사들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 인력의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또 이들을 교육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군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의 부정 영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적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배포하는 것도 군과 전문기관들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네 번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에서 제공하는 심리적 취약성 진단결과는 단지 인터넷 중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정도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울증, 통제력, 효능감 요인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 병사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척도제작 기간에 병사들이 군내의 인터넷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타당도 검사가 어려웠다. 기존 연구들에서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할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들어난 사례들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검사개발의 자료로 활용이 어려웠다. 따라서 척도의 변별력을 검사할 준거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기존연구와 획득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부족하지만, 군의 인터넷 중독연구가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후속연구들의 해결과제로 남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들을 활용하여 교차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적조사를 통한 예언타당도 검증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적조사와 자료의 누적을 통하여 검사 요인과 문항들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표준화의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군의 간부들의 인터넷 활용은 부대 내

에서도 병사들보다 자유롭고, 일과 후에는 일반사회인과 유사한 조건이기 때문에 병사들과는 다른 문제요인을 갖고 있다. 또한 간부들은 군의 간부이면서 동시에 성인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작용의 폭이 병사들보다 넓고 파급효과도 크다. 따라서 군 간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척도의 개발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만철, 오익수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I). **교육심리연구**, 15(4), 5-21.
- 국민일보 (2006). **초등예비교사 30% '인터넷 중독' 위험성**. 9월 24일.
- 김선우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 (200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 개발 및 심리사회적 취약성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침택, 김동일, 박중규, & 이수진 (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문성원, 김성식 (2004). **아동을 위한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1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21-77.
- 송원영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순묵,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 (2005). **성인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형초 (2001). **인터넷게임 중독의 진단척도**

- 개발과 인지행동치료효과.**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형초, 안창일 (2002).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진단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 7, No. 2.** 211-239.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 경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보통신부 (2007). **2007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2007년 8월).
- Goldberg, I. K. (1995). Internet Addiction Disorder.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supportgp.html>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p. 899-902.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7, Vol. 26, No. 2, 307-328

## **Development of Diagnostic Scale of Internet Addiction for Private Class in Korean Military**

**Yong-Joo Kim    Oung-Sub Shin    Jae-won Ko**

**Korea Military Academ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endencies of internet addiction in privates class of Korean armed forces and to develop a measuring scale of it. For these purposes, first, we surveyed privates (N=454) who were sampled from a couple of Army infantry divisions to develop sample items of the internet addition scale. Second, pilot survey(N=900) was conducted to explore factor structure of the collected 134 items through the first survey. Finally, main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1,905 privates of Korean Army, Navy, and Air Force. Final scale, i.e., 'Diagnostic Scale of Internet Addition Tendencies in Military Private Class', has sixty-one items and is consisted with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has twenty items which were mostly adopted from Lee et al.'s (2005) scale and measures personal history of network addition before being enlisted. The second part has thirty-three items and measures psychological vulnerability of a person to internet addiction such as loneliness,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The final section which consists of eight items measures substitutive behaviors and desires which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Based on self-inventory scores on the scale, we classified privates into three groups: risky, latent, and normal groups. The scale will be useful in diagnosing current state of military privates who had been addicted to internet usage and contribute to prevent malignant accidents which may be caused by privates who were addicted to internet usage.

*Key words: Internet Addition, Psychological Vulnerability, Addiction-related Substitutive Behaviors,*

*Loneliness, Self-efficacy, Self-control*